

전 남

강진 '돈 되는 숲' 만든다

강진군에 산림을 이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영모델 숲'이 조성된다.

5일 군은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칠량면 명주리 일원 1천ha를 산림이 가진 생태적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산림 숲의 특성을 살린 산림경영모델 숲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모델 숲은 지역 산림이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려 특색있는 숲으로 조성하고, 산채·약초재배 등과 치유, 체험 산촌휴양관광을 연계시켜 산촌의 발전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의 경영모델 숲은 초당산림

2010년까지 30억 투입 '경영모델 숲' 조성

약초재배·산촌 휴양관광 연계 소득 창출

백태전(대표 김기운)에서 40여년 전부터 인공조림으로 성공한 칠량면 명주리 초당림(국내 최대의 백합나무 군락지)에 3년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경영을 통한 조림, 간벌, 숲가꾸기 사업과 지역소득·관광 인프라를 위한 관련사업 등이 병행 추진된다.

초·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체험학습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대, 레포츠 코스를 개발한다. 또 버섯류를 재배하고 곤충 및 산약초 판매장도 운영한다.

특히 숲 조성에 따른 웰빙 숲, 산림복원 테마 숲, 백합나무림과 노각나무 군락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보전 숲 등으로 숲의 기능과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번 산림경영모델 숲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현지에서 사례 발표 및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현장토론회 등 '산림경영모델 숲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한상춘 군 산림복지팀장은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나무를 특성화해 산촌지역 주민과 산림경영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숲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섬진강 물길따라 함께 걸어요

지난 3월 제 1회 섬진강 물길따라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섬진강변을 걷고 있다. 이들은 섬진나루터에서 봉어와 잉어 치어 등 8만마리를 방류, 섬진강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행사도 가졌다. 이번 대회는 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광양자치포럼이 주관했다.

대구는행-참사랑의료원 자금협상 합의

강진의료원 신축공사 4년만에 재개

대구은행-참사랑의료원 자금협상 합의

전남도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단됐던 강진의료원 신축공사가 사업시행계획 4년 만에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라남도도와 강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인 대구은행과 사업시행자인 강진 참사랑의료원(주)간에 그동안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금조달 등 자금관계 협상에 따른 합의점이 마련됨에 따라 제반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

다 고 밝혔다. 현재 통신·전기·수도 등을 관장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끝내고, 일부 매입 건물철거에 들어간 가운데 발주기관인 전남도는 이달 중순 본공사를 착공할 경우 오는 2011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을 비롯해 해남·완도·영암·진도·장흥 등 서남부 6개 지역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강진의료원은 총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며 일반병동 120 병상과 노인요양 130 병상을 갖추고 4개 실의 장례식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전남도의회가 도정 질문을 통해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강진의료원을 타 시설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측은 "의료취약지역인 서남부 30만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맞춤형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경영수익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

장흥, 전통차 '청태전' 복원 나서

목포대와 업무협약... 명품화 사업 심혈

장흥군이 고부가가치 전통차인 '청태전(靑苔錢)' 복원사업과 명품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청태전의 고 품질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차의 생산·가공·이용·문화 등 차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류 융합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임상실현

을 통한 항비만 효과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 고품질한 품질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청태전'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찻차의 일종인데, 찻잎을 따기마늘에 찢 뒤 절구에 찢어 엮진 모 양으로 만들었다. 차에 파란 이끼가 낀 것 같다고 해서 '청태'라는 이름이 붙었다. 장흥 청태전은 지난해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된 세계 녹차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수산업 전남 최고

2009 수산경영대상 수상

장흥군이 전남도 2009 수산경영대상에서 경영대상을 차지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 2연안 12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09 수산경영대상 평가보고회'에서 장흥군이 경영대상을, 우수상을 완도군, 장려상은 여수시와 신안군이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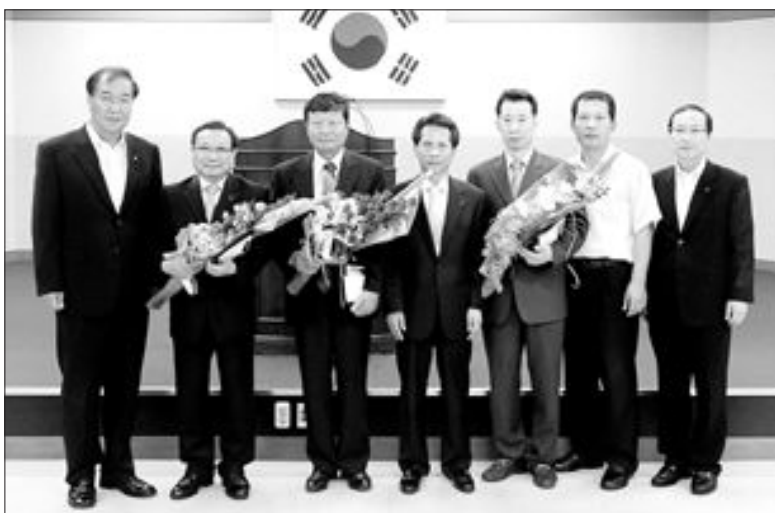
이번 평가보고회 실적심사는 수산업 규모·기업화 추진, 수산물 가공·유통회사 투자유치 및 수산물 판매시스템의 3개 분야에 대해 차등 점수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장흥군은 친환경 수산양식과 관련해 지난해 5월 2일 전국 최초로 무산 김양식을 선로

하고 마린김에 대해 올해 3월 13일 전국 최초로 국제유기인증(IFOAM)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외에 우리 수산물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이자 제1호 수산물 주식회사인 '장흥무산김주식회사'를 설립한 탁월한 공로와 실적을 인정받았다.

또 우수상을 받은 완도군은 전북 일류화상품 지속 추진과 국내의 대형유통업체로의 판매시스템 확장 및 제2호 '청해 진미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여수시와 신안군의 경우 수산물 주식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농협 1사1촌상 시상식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최근 1사1촌상을 수상한 서울 명동교자(대표 박 제임스 휘준)와 고흥 도덕면 성항마을(영농회장 김경태), 북동농협(조합장 김광선) 대표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최근 1사1촌상을 수상한 서울 명동교자(대표 박 제임스 휘준)와 고흥 도덕면 성항마을(영농회장 김경태), 북동농협(조합장 김광선) 대표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함평, 밀원수 바이텍스 식재

안정적 벌꿀 생산 소득증대

함평군은 친환경 벌꿀 등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온대식 밀원수(蜜源樹)인 '바이텍스'(Vitez negundo)는 군 전지역에 식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향산화작용과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허브식물이자 벌꿀을 채취하는

밀원식물인 바이텍스는 7월부터 9월 까지 3개월 동안 작은 보랏빛 꽃이 밀생하며 4천47㎡에서 1t의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 여부에 적합한 새로운 밀원수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는 실증포장 1천300여㎡ 면적에 1만3천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군 전지역에 식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향산화작용과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허브식물이자 벌꿀을 채취하는

/함평=황용기기자 hwang@

순천 정원박람회 부지 3.76km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는 2013년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시 오천동 등 일부 지역이 오는 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계획 정부승인 등으로 순천지역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람회

개최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박람회 예정부지인 순천시 오천동과 남정동 일대와 풍덕·연항동, 해룡면 대안리 일부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76km이며 지정기간은 8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이다. 이곳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순천시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는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한 사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박람회 개최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투기행위가 번갈아 일어나고 있어 토지거래를 제한했다"며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은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and a logo for Km.